

다산포럼



김태희
다산연구소장

일본의 초계기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광개토태왕합에 근접 비행을 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18일, 22일, 23일 잇달아 우리 합정에 위협을 주는 '저고도 근접 비행'을 했다. 23일에 있었던 대조영합에 대한 도발은, 하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상황이 잘 마무리된 것으로 발언을 하고 있을 때였다.

일본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25일 초계기가 배치된 가나가와현 아스기 기지를 방문했다. 해상자위대 조종사 복장이었다. 초계기 조종사를 비롯한 자위대원을 상대로 "제군들의 노력이 우리의 바다, 하늘, 영토와 국민을 지키고 있다"고 격려했다.

정경두 장관도 26일 조종사 점퍼를 입고 해군작전사령부와 세종대왕함 전투 통제실을 방문했다. 정 장관은 초계기 도발에 대해 "군 대응 수칙대로 적법하고

초계기 도발에 신중한 대응을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맞불 성격이면서도 발언 수위가 약간 높아진 느낌이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27일 오이타현 히노데마치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방위 당국 간의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초계기 문제로 한일 관계가 냉각되는 가운데, 이와야 방위상은 한국의 냉정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하고 한일 방위 당국 간의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정 장관의 강경 대응 발언에는 일본의 이중 플레이에 대한 배신감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절제 있는 대응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여겼던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또 다른 도발로 이어진 것이다. 뒤늦게 18일과 22일의 초계기 비행도 국민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고, 이제 국민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일본의 의도에 맡겨두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일본의 의도는 대박 짐작해 볼 수 있다. 아베 정권은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북한의 핵 위협이 좋은 구실이 되어 왔다. 그런데 북한과 미국이 대화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활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어떻게든 군사

적 긴장을 고조시킬 다른 구실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 관측인 듯하다.

당장 아베 내각의 지지를 제고만 고려한다면 약간의 긴장 조성으로 효과를 거두는 데 그치겠지만, 목표를 더 높이 잡는다면 초계기 도발을 통해 우발적(?) 충돌까지 내심 바랄 수도 있겠다. 안으로는 전쟁 세력을 결집하여 헌법 개정을 서두르고, 밖으로는 군사적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목적으로, 초계기 갈등을 계속 이어가거나 유사 사건이 앞으로 단속(斷續)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을 해 볼 수 있다.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군국주의 일본의 기만술이나 상황 조작을 여러 차례 보아 왔다. 운요호(雲揚號) 사건(1875)이나 만주사변(1931) 등이 그 예이다. 100여년 전 일본의 위정자들은 일본을 근대화로 이끌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군국주의로 정쟁을 일으켰다. 이웃나라의 국민들을 말할 것 없고, 일본 국민도 심대한 고통을 겪게 했다. 이런 과거의 아픔이 아직 씻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일본의 일부 위정자들은 평화헌법의 일본을 무너뜨리고 과거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

우리가 과거의 피해 의식에 지나치게 사로잡힐 것은 아니지만,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다. 일본의 군사적 행동 일거수 일투족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일본이 노리는 군사적 충돌에 휘말리지 않게 최대한 경계해야 한다. 다음 수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 대응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요컨대 이번 초계기 도발이 엄중한 사태임을 직시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대응에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이끌 필요도 있다. 초계기 사건을 일본이 먼저 거론하면서 레이더 시비를 걸어 왔다. 일본 초계기 도발의 1차적 목표가 일본 국내의 전쟁 세력을 결집하려는 것이라 한다면, 그 목표를 좌절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일본 내 협한 전쟁 세력에게만 감성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일본의 평화 세력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야 한다.

나아가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군사력이 위협하다는 것과 그에 대한 동아시아인들의 의구심을 국제 사회에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평화 세력이 연대하여 동아시아 평화를 지켜야 한다. 안으로는 우리의 방위력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곧 3·1운동 100주년이다.

社說

한전공대 나주 확정 이젠 조기 건립 힘 모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분야 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한전공대의 부지가 나주로 최종 결정되면서 대학 설립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 광주·전남 지역 지자체 간 치열한 유치 경쟁으로 자칫 2022년 개교의 결림돌이 될 뻔했던 입지 선정 작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이다.

한전공대 입지선정 공동위원회는 어제 나주시 빛가람동 혁신도시 한복판에 있는 부영CC를 한전공대 설립 부지로 확정 발표했다. 심사 결과 광주·전남 여섯 곳의 대상지 가운데 최종 후보에 올랐던 나주 부영CC가 92.12점, 광주 첨단산단 3지구가 87.88점을 받았다고 한다.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광주시는 발표 직후 부지 결정을 수용하고 한전공대 성공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꼭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전공대 부지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는 물론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 본사와 인접해 있

어 에너지 밸리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특별법이나 특별법을 통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한전은 공대 설립에 최소 5000억 원이 필요하고 매년 운영비로 500억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재정 형편상 정부와 지자체의 대폭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한전의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공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것도 관련 법안 입법 과정에서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전이 약속한 개교 시점까지는 이제 3년 남았다. 한전공대는 국정 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부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한전 역시 한전공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부와 지자체에 기대려 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친환경차 보급, 인프라 부족이 걸림돌이다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미세먼지 속에는 다양한 중금속과 화학물질 및 발암물질 등이 포함돼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양도 상당하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등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양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부족한 충전 인프라가 걸림돌이다.

일례로 광주그린카진흥원이 운영하는 광산구 진곡 수소충전소는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여태껏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수소충전소 냉각기 파손에 따른 열교환기 부품 교체에 더디게 진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발주와 운송하는 데만 1개월 넘게 걸리는 수입산 부품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업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소차·충전소 인프라 국산화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소차는 무엇보다 배기가스가 없고

미세먼지까지 정화할 수 있어 '달리는 공기정화기'로도 불린다. 하지만 충전소가 전국적으로 10여 곳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전기차 인프라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다. 광주시는 현재 운영 중인 전기차 1447대 외에 올해 추가로 1074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충전기는 현재 운영 중인 1425개에 더해 616개를 확충기로 했는데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했다. 전남도 역시 올해 22개 시·군에 1267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기로 했는데 전체 보급 대수(2310대)에 비하면 전기차 충전 시설(2183기)은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가 말잔치에 그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입주인 반대에 부딪혀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지 못하는 공동주택이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기고



배운식
광주시 건축주택과장

오랫동안 사용하던 노트북이 간혹 말썽을 일으킨다. 오래된 노트북이라 그러려니 했는데 결국 포맷해야 했다. 모든 자료를 백업하고 포맷하는데도 후시나 하는 생각이 조마조마했다. "포맷은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전원을 ON-OFF 하는 것처럼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자료는 D드라이브에 저장하면 백업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초기화할수록 컴퓨터 성능이 좋아집니다." 수리 기사는 컴퓨터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센터에 오지 말고 포맷으로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문득 컴퓨터를 처음 사용하던 때가 생각났다. 지금이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장치 등이 익숙하지만 30년 전만 해도 생경한 이름들이었다. 그 때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백지상태로 돌려놓는 포맷은 두려운 일이었다. 플로피 디스크를 포맷 하기 전에 몇 번을 고민하고 정말 해야 되는 것인지 재삼 확인하곤 했다.

건축, 공간의 기억법

아마도 포맷이 나의 어떤 기억을 완전히 삭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던 까닭일 게다.

인간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기억으로 저장하며, 저장된 기억을 연결해 사고하고 움직이는 존재이다. 지금은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그런 기억들을 소환해준다. 심지어 페이스북은 과거에 포스팅한 글과 사진들을 '오늘 아침'에 공유하라고 부추기기까지 한다. 나는 언제부터가 기계적인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나만의 시냅스로 촘촘하게 연결된 아날로그 기억으로 살고 있다. 때로 건축 행정가에게도 가장 좋은 건축의 소재는 자신의 감각으로 연결된 기억이니까.

사람만 기억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김명식은 '건축은 어떻게 아픔을 기억하는가'에서 "기억을 지속시켜주는 것은 공간 뿐이다. 지나간 일, 사건의 시간의 개념으로 되돌아 오지 않지만 공간은 지속적인 기억을 제공해 준다"고 했다. 고문으로 악명 높은 남영동 대공본실, 서대문형무소 등 고통의 기억과 대면하는 일은 괴롭지만 다시 치유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도 결국 공간이라고 이야기한다.

'민주·인권 도시' 광주에도 아픔이 새겨진 건물들이 있다.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전지였던 옛 전남도청 별관은 국

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당시 보존이나 철거나로 흥역을 앓았다. 현재 일부 건물은 철거되고 그 자리에 옛 건물을 연상케하는 철골만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부분을 포함해 옛 전남도청 전체에 대한 복원을 약속했고 지난 6개월 동안 연구 결과를 통해 시민군이 상형실로 사용했던 1층 서무과와 2·3층 도지사실 등을 복원한다. 아시아문화전당 입구로 사용하기 위해 일부를 헐어버린 도청 별관 건물도 원형대로 본관과 이어진다. 다만, 1·2층은 전당 입구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복원은 3·4층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일빌딩도 5·18 당시 집압군의 헬기 기총 소사가 남긴 총탄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2017년 전일빌딩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오월 역사의 흔적이 새겨진 건물 원형을 철거하는 계획안이 마련돼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안전 C등급을 받은 건물의 노후와 주차장 확보 문제로 총탄 흔적이 집중된 7층~10층이 철거 위기에 놓였던 것이다. 시민단체와 줄다리 끝에 5·18 역사성을 살려 총탄의 흔적을 원형 보존하고 5·18 추념 공간 등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건축물을 파괴하는 행위는 그날의 흔적과 기억을 포맷시키는 것과 같다. 건축도 현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흔적과 기억을 끌어 올 수 밖에 없다. 관건은 건축물을 파괴하지 않고 어떻게 과거를 투영하는 현재의 시대 가치를 담을 것인가이다. 과거를 현재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것은 시대 가치를 잃고 상상하는 데서 출발한다. 건축의 시대가 치는 과거의 가치가 현재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잡을 수 있을 때 역사의 흐름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기억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재현화되는 것이며, 건축의 내용적인 측면도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어느새 정보화 시대라는 말조차도 낡은 옷처럼 느껴진다. 먼 미래에 도래할 것 같았던 낯선 인공지능이 어느 순간 숲 깊숙이 들어와 있다. 4차 산업 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 융합의 시대'로 정의한다. 건축 분야에서도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경계를 뛰어넘어 세대와 시대를 아우르는 건축 공간의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건축 공간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대 가치와 건축 기술, 과학 기술이 융합하고 맞물려질 때 가능하다.

현재 진행형의 아픔을 간직한 역사적 건축 공간들이 그날의 기억과 공명하면서 미래를 담는 공간으로 부활하기를 기대해 본다.

청춘 특·특

내가 꿈꾸는 대학 생활



황정민
조선대 기계시스템미래자동차공학부 신입생

청소녀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대학 생이 된다는 것은 걱정과 기대심을 동시에 갖게 해준다. 물론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로 걱정은 많았다.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경쟁 사회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 수많은 노력들, 이 때문에 조바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나와 관심사가 같은 뛰어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설레고 기대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꿈꾸고 기대하는 대학 생활을 말하고자 한다.

대학교에는 많은 동아리가 있다는 것

이 가장 기대가 된다. 학생 수가 많은 만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동아리 덕분에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대학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영어 회화에 관심이 많은데 인강을 듣고 책을 통해 공부하는 것보다는 함께 공부할 사람을 만나 대화를 통해 한다면 영어 어휘력 향상은 물론이고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하기 싫은 일은 잘 안 하는 성격이지만 여유보다는 바쁜 일정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와 대학 생활을 둘 다 해야 하는 대학이 나에게서는 최고의 환경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여러 동기와 선배를 만나게 되면 서자연스럽게 모임이 생기고 웃고 떠들며 말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질 것인데, 나는 이런 '유쾌한' 학교 생활을 꿈꾸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동기들을 만들어 웃고 싶단 치며 스무살 대학 생활을 즐기고 싶다.

기대되는 일 중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이곳에서는 맘껏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리더 역할을 좋아하고, 공학 분야에 매우 특별한 관심이 있는 나

는 대학에 들어오기 전부터 같은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기계를 나의 방식대로 재설계하는 것이 꿈이었다. 대학에 들어가 나의 열정을 표현한다면 공대에 있는 사람들 중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은 몇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대학에 가서 만끽할 가장 행복한 일일 것이다. 고등학교 때는 각자 분야도 다르고 공부라는 한 곳에만 매진하였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이용해 소형 항공기를 제작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에 많은 친구와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했지만 옆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신기하다며 보는 게 끝이었다. 대학교 동기들은 다를 거라 생각한다. 나보다 뛰어난 재능 있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조언을 통해 나를 발전시키고 서로 같은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주고받아 나의 열정을 대학에서 다 풀어낼 수 있을 바란다.

대학에서 어학 연수나 해외 인턴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볼까 한다. 회화를 공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

외에 나가서 한국과 다른 문화를 접하고, 또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며 대학 생활을 하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어학 연수나 해외 인턴 같은 프로그램이 단순히 하나의 스펙이라고 생각해서 원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 나를 발전시키고 동시에 어느 곳을 향하는 찾아와 줄 친구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대학에서 운영하는 해외 프로그램이 벌써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

대학은 공부와 사회생활을 동시에 하는 곳이 아닌가. 직장을 가지거나 꿈을 이루기 전에 미리 사회를 체험하고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곳이 대학인만큼 나는 내 주위에 좋은 동기들을 많이 두고 싶다. 사교성이 남들보다 좋은 편이기 때문에 새로운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정말 즐겁고 떨리는 일이다.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꼭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어려움 속에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일도 경험하고 경험을 쌓다 보면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 사람인지, 또 어떤 점에서 내가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無 等 鼓	
보성군 농동면 학동리 학송 마을은 경전선 간이역인 명봉역에서 멀지 않은 농촌 마을이다. 이채롭게도 마을 입구에 '향약(鄉藥)' 비석이 세워져 있다. 네모난 오석(烏石)에 모두 6개 향이 새겨져 있는데 '조상을 숭배하고 웃어른을 공경'(崇祖上敬)하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친척과 정 두렵게 우애하라'(孝辨親敬)가 첫머리에 놓여 있다.	
이어 근검절약과 착한 일을 권장하고, 배움에 힘쓰라고 강조한다. 마지막으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마을 공동체	
다하고 집안을 보전하 며 나가라'(禮謹保家) 를 타기도 하고 작은 축제를 열기도 한다.	
'마을 공동체가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단절된 도시와 농촌을 살리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향약'이 마을을 시정하는 정신적 지주였다면 현재는 주민 스스로 나서는 '마을 공동체' 활동이 쇠락한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주민과 행정을 이어주는 광주와 전남의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와 '마을 활동가'들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관심'이다.	
/송기동 문화2부장·편집국장 부국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燦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사국(독신형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경 처 부 220-0632 정 처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매 체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